

동문 국회의원 7명 배출... 경기고 이어 전국 2위



제 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박병석(49회)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명수(52회)
충남 아산갑
(새누리당)



유민봉(55회)
비례대표
(새누리당)

2016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5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모교 강당 및 운동장

2016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5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모교 강당과 교정에서 열린다.

1부 식전행사로 축하 공연에 이어 2부 정기총회, 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되며, '자랑스러운 대능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동창회에서 많은 동문이 모교 재학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대전 동문들과 쌓인 회포를 풀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 참석한다.

2016 자랑스러운 大稜人

민경갑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32회)



해 노력하는 작가로 역사 속에서 평가받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민족 정서를 지켜온 민 동문의 호는 유산(西山). 예술원 회장 임기는 2017년 12월 19일까지다.

시상식은 2016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린다.

〈민경갑 동문 프로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프랑스 파리 UNESCO 초대 개인전
서울시립미술관 초대 개인전
예술원 개원 60주년 〈어제와 오늘〉展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예예술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서울특별시 문화상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5·16 민족상
3·1 문화상

현재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대능인상' 수상자로 민경갑(閔庚甲, 32회) 동문이 결정됐다. 민 동문은 관념의 벽을 넘은 새로운 한국화의 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원로 화가로 문화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자. 이는 모교 역사상 초유의 경사이기도 하다.

"정체성을 지니고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

대능 건아의 진면목 보여준 쾌거

모교 출신 동문 7명이 제 20회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아 명문고로서의 위명을 전국에 떨쳤다. 13명을 배출한 경기고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전국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것은 대능 건아의 진면목을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경기고는 아직도 매 선거 때마다 1위를 도맡아 하는 명문고이고, 이에 버금가는 게 대전고이다. 그동안 2위를 놓고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전주고, 서울고, 경북고 등과 매번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었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모교가 이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에 올라섰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모교 출신 8명을 당선시켜 4위를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1명 줄었지만 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단골 1위인 경기고 역시 19대 17명에서 20대 13명으로 크게 줄었다. 갈수록 당선자 폭이 여러 학교로 고르게 퍼지는 탓일 것이다. 3위는 6명을 당선시킨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전주고, 중동고 등 5개고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번에 금배지를 단 동문은 49회 박병석 동문(대전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이명수(52회,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유민봉(55회, 비례대표, 새누리당), 최명길(57회, 서울시 송파구을, 더불어민주당), 정용기(60회, 대전시 대덕구, 새누리당), 이장우(63회, 대전시 동구, 새누리당), 김용태(66회, 서울시 양천구을, 새누리당) 동문 등이다. 5선의 박병석 동문은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돼 6선으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강창희 동문(44회, 전 총동창회장)은 정계에서 은퇴했고, 김태원 동문(47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은 이번 에 아깝게 낙선해 금배지를 잃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는 강창희, 김태원, 박병석, 이명수, 이운룡(59회, 비례대표), 정용기, 이장우, 김용태 동문 등 8명이었다.

19대 당선자를 출신 고교별로 보면 경기고가 17명으로 역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 다음은 9명을 배출한 경북고, 광주일고가 공동 2위, 대전고가 8명으로 4위를 차지했었다.

앞으로 현재 정도의 당선자를 내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동창회 차원의 조직적인 성원과 동문들의 유대강화 및 대대적인 후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권오덕(41회, 전 대전일보 주필)

대전고 동문을 위한 소식지 〈大稜〉이 달라집니다

- 일방통행식 보도 행태를 지양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원고(사진)는 가급적 모두 실겠습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도 환영합니다.
- 개업·구인·구직·판매·구매·알림 등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해 드립니다.
- 광고 전단지 등 회보와 함께 발송해 드립니다.(우편료와 발송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1년 앞으로 다가온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동문 성원 절실... 힘 모아 성공시킵시다

대전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0여개가 넘는 전국 고등학교 중 공립 학교로는 손 꼽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입니다.

3만9천여 졸업생 중에는 걸출한 인물로 성장해 나라의 동량이 된 동문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모교가 키워낸 보배들입니다.

100년이면 강산이 열 번이나 변한 긴 세월입니다. 바뀐 세상 탓에 전국적으로 전통의 명문고들이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불굴의 DNA가 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잠재된 에너지를 폭발시킬 저력이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동문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모교와 동창회를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개교 100주년이 그 기폭제가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희망 대고'의 새 역사를 써 나가는데 동참합시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원만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map시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첫 장을 여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3만9천여 동문뿐 아니라 대전 시민의 축하이기도 합니다.

모교가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100년의 전통을 이어 올 수 있기까지는 대전 시민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취에 도취해서는 안 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기념사업회와 동창회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동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역부족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각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문들의 재능 기부가 절실합니다.

동창회와 기념사업회가 무사히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현일 회장 초청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신현일 총동창회장은 4월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 중식당 서궁에서 전직 회장 등 상임고문과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동문, 동창회 집행부 임원을 초청해 당선 축하연을 열었다.

모임에는 박병석(49회), 이명수(52회), 유민봉(55회), 최명길(57회), 정용기(60회), 이장우(63회), 김용태(66회) 동문 등 당선자 전원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26회), 박영규 총동창회 고문(28회), 김시중 전 과기부장관(30회), 나웅배 전 부총리(32회), 이동호 전 내부부장관(35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38회), 김각영 전 검찰총장(41회),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42회), 장영철 대한당구연맹 회장(45회)을 비롯해 이신석 총동창회 수석부회장(48회), 김순식 사무총장(51회), 이동혁 사무국장(58회), 재경에서 금동화 감사(48회), 조석준 기획부회장(51회), 조동인 장학부회장(56회), 김용덕 사무처장(56회)이 참석했다.

축하연은 신현일 회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조완규 전 장관의 동문과 모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사, 당선자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대능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16학년도 대학진학 현황				
(2016. 3. 1 기준)				
수도권	서울대	3	경희대	4
	고려대	4	서울시립대	2
	성균관대	7	동국대	3
	한양대	7	홍익대	3
	중앙대	1	수도권 기타	17
대전충청권	충남대	24	충북대	5
	공주대	8	한밭대	44
	한국기술교육대	6	기타 지역 국립대	31
	의·치·한·수의학 계열	1	포항공대	1
	전체 진학 인원	326		

동문동정			(기수 순)
성 명	기 수	직 책	
민경갑	32회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선임	
정건해	43회	부인 손혜원 서울 마포을 20대 국회의원 당선	
유한식	47회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박병석	49회	대전 서구갑 20대 국회의원(5선) 당선	
전병구	51회	대전 YMCA 30대 이사장 취임	
이명수	52회	충남 아산시갑 20대 국회의원(3선) 당선	
유민봉	55회	비례대표 20대 국회의원(조선) 당선	
이흥구	55회	모교 교감에서 충남여고 교감으로 전보	
김영상	56회	충남대 제18대 총장후보자 1위 선정	
김황구	56회	총경 승진/예산 경찰서장 부임	
고현욱	57회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부임	
노병찬	57회	공무원연금공단 신입 상임감사	
민병관	57회	(주)보광 신입 대표이사	
이관순	57회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	
최명길	57회	서울 송파을 20대 국회의원(조선) 당선	
김정훈	58회	대전KBS 총국장	
김희철	58회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석두	58회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창현	58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이광수	58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마케팅본부장	
임재룡	58회	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본부장	
임현문	58회	KT Mass 총괄사장 승진	
정용환	58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근부회장	
전우홍	58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입 부교육감	
정길영	59회	감사원 감사위원 내정	
김봉국	60회	한국금융신문 사장 취임	
정용기	60회	대전 대덕구 20대 국회의원(2선) 당선	
진승호	60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변재상	61회	미래에셋생명 법인영업 총괄대표	
현태인	62회	(재)전북테크노파크 신입 정책기획단장	
안태정	63회	총경 승진	
이장우	63회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재선) 당선	
송석봉	64회	서울고법 판사로 영전	
김용태	66회	서울 양천구를 20대 국회의원(3선) 당선	



45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45회 동문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5월 2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교 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80여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기념식은 특히 네 분의 은사가 자리를 함께 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평양아리랑 예술단과 팝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터, 초대가수 이만수, 문정선의 흥겨운 공연 속에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금지, 자부심을 만끽하고, 고교 시절 고락을 함께한 동기들과 진한 우정을 나눈 하루였다.



모교 출신 공직자회 송년모임

대전고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대전고공직자회(회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58회)의 송년모임이 지난해 12월 30일 충무로 대립정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공직자 외에 40회 이정치, 김구 동문부터 70회 신상훈, 연성훈 동문까지 50여명이 참석해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건승을 기원했다.



대전고 동창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대전고동창장학회(이사장 : 장영철, 45회, 한국당구연맹 회장)의 2016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3월 28일(월) 오후 6시 30분 충무로 대립정에서 열렸다.

2014년 4명, 2015년 4명, 그리고 올해 4명을 추가해 12명의 장학생을 선발, 군입대 등 휴학생을 제외한 9명에게 전달했다. 장 회장은 또 고대교우회 장학금 중 모교 출신 2명에게 추가로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천하기도 했다.

전달식에는 송인준 성신여대 이사장(42

회, 전 헌법재판관, 전 재경동창회장)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수여식을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장 이사장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동문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홍성표 장학회 간사(52회, 전 신용회복위원장), 김용덕 재경동창회 사무처장(56회,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종무 전 행정실장(61회), 지동선 신입 행정실장(63회)이 참석했다.



아성재단, 장학금 5,600만원 지급

아성재단(이사장 권오상, 49회)은 3월 3일 오후 4시 재단 사무실(서울 잠실동)에서 모교 졸업생에게 장학금 5,600만원을 지급하는 2016년 아성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급된 아성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동문으로 새로 선발된 1학년 5명과, 지난 4년 동안 선발된 2, 3, 4학년 15명 중 군입대 휴학생 6명을 제외한 9명 등 14명에게 등록금으로 1인당 400만원씩 총 5,600만원이다.

이로써 아성재단 장학생은 총 23명이 되

었고, 졸업생 3명 배출, 5년 간 누적 장학금 액은 2억850만원에 이른다.

권 이사장은 장학금을 전달한 후 후배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장학생 후배들이 더 많아져 가슴 뿌듯하다”며 아성장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일꾼이 되고, 각자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달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는 덕담으로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역 서점은 건강한 지역사회 이끄는 보물창고”

다음은 지역 서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변재훈 타임문고 대표(58회)의 이야기다. 변 동문과는 이메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편집자 주>

2014년 도서관가제 실시 이전에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이 할인정책과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서 골목서점과 영세서점은 학습서나 참고서 위주의 서점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영세서점과 골목서점을 살리기 위해 2014년 11월 도서관가제 법령을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K문고 같은 대기업 서점의 경우 이점을 역이용해 대전에도 7월 말 1,000평 규모의 매장을 낸다고 한다. 올해에만 전국에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5군데 이상 만든다고 한다. 영세서점을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지역의 중·소형 서점이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대전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 300여곳에 달하던 도매 총판 및 소형서점이 현재 172곳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역 서점의 경우 대부분 문제집이나 참고서 정도만 갖췄을 뿐 인문서적이거나 아동서적이 없어서 많은 책을 보고 구매하고 싶은 독자들을 대형서점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타임문고의 경우 책을 파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콘텐츠 및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전 최고의 문화 복합공간을 만들어 대전시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다.

대전 시민들이 지역 서점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형서점의 경우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직영하므로 판매 이익금이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 지역 서점을 이용해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대형화된 온·오프라인 서점과 경쟁하는 지역 및 동네서점의 어려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주도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 독서인구가 감소해 서점이 많이 사라졌다. 동네서점은

베스트셀러와 학습참고서만 파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지역에 맞게 출판생태계에 적절히 대응,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점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다. 지역의 문화와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보물창고나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은 서점을 통해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서점인으로서 미력이나마 지역사회 독서인구의 저변을 늘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7월 초 타임문고 시청점을 오픈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역 6번출구옆 (구)지중해일식, 서점 200평 브런치카페 80평)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이 인사드립니다

박병석(49회·5선)/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49회 박병석입니다.

대전고가 없었으면 오늘의 박병석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충청권 정치 사상 최초로 낙선 없는 5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문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관심과 지지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연락 주시고 찾아와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배운 ‘순결, 진실, 용기’의 교훈은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올바르게 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부터 국회부의장을 거쳐 5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

습니다.

성실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모두 학창 시절부터 배운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듯하고 진솔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신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고 동문은 총 7명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은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하며 모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더 큰일,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모교의 발전과 대전 발전,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선후배분들께도 뿌듯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52회·3선)/새누리당/충남 아산갑

존경하는 대전고 동문 여러분,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늦게나마 당선 인사 올립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대전고 동문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 충청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명수를 지켜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더 큰 봉사와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니다.

이번 당선으로 3선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고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도록 20대 국회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동문들께서도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동문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년 후에도 역시 대전고 출신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민봉(55회·초선)/새누리당/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유민봉입니다. 신록이 깊어가는 5월, 제20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선후배, 동기 여러분께 당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고는 1917년 개교 이래 3만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미 많은 동문께서 정계, 학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26년 간 재직하였고, 박근혜 정부 전반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부족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란 오명을 들었습니다. 의안처리 면에서 법안 가결률이 12%에 그쳤

습니다. 법안 제출 건수는 16,894건으로 역대 최대였으나 가결 건수는 2,065건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 표출, 대국민 소통 미흡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교육·통일·복지 등 굵직한 현안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 교정에 늘 웅장하게 서 있던 낙우송의 기개처럼, 순결과 진실, 용기로써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길(57회·초선)/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을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여러분!

송파구를 국회의원 당선자 대전고 57회 최명길, 선후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정치에 입문해 처음 출마 준비를 할 때부터 송파을의 승리가 있던 그날까지 동문 선후배님들, 그리고 57회 동기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찾아와 주시는 선배님, 밤새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보내 주신 끝없는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로 대고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비록 서울 송파를 지역구로 한 정치인이지만 태어나 자란 고향 대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 5월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모교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아침 출근 길, 새마을시장, 경로당, 상가 곳곳을 찾아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딸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바퀴 돌기도 했구요. “당선자가 이러는 거 처음 본다”는 말씀에 “그렇리가요~” 했지만 마음 번치 말고 잘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에 더 바르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20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용기(60회·재선)/새누리당/대전 대덕

먼저 제20대 총선에서 함께 당선되신 선배, 동문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동문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3만9천여 대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대전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며 전통명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교의 교훈인 ‘순결, 진실, 용기’는 제가 공직생활에 임하는데 있어 도덕률과도 같습니다. 대능인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바친다고 합니다. 4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덕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대덕 발전’으로 보답하

겠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거대도시, 메갈로폴리스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 중앙부인 충청에 메갈로폴리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릴 메갈로폴리스 시대에는 충청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중심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연구 기반에서 나오는 성과물들이 산업화, 사업화되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중심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투명하고 깨끗한 보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능한 보수, 힘없고 약한 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수,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꿔내는 생활보수 등 보수의 4대 비전을 실천해 건강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이장우(63회·재선)/새누리당/대전 동구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부족한 저에게 보내 주신 대고인의 성원 덕분에 재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대능인의 금지를 바탕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에 진력하겠습니다.

근면함과 성실한 모습으로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길이 봉사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주신 선후배님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강력한 추진력과 가시적인 성과로 대능인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김용태(66회·3선)/새누리당/서울 양천을

안녕하십니까? 66회 졸업생 김용태입니다. 지난 4·13총선에서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동문 선후배님들께 조금은 면목이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고 출신으로 저 말고도 박병석 선배님, 이명수 선배님, 유민봉 선배님, 최명길 선배님, 정용기 선배님, 그리고 이장우 선배님 등 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 중에서는 제가 가장 후배입니다.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순결’, ‘진실’, 그리고 ‘용기’. 모교의 교훈은 정치하는 저한테는 늘 금과옥조입니다.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내걸었던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도 없다’라는 사무실 사훈도 모교의 교훈을 디딤돌 삼아 내 건 구호입니다.

작년 6월 3일에 투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후배 박승일(69회) 선수와 함께 모교를 방문했습

니다. 대능동산에서 같고 닮은 소양을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20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올곧은 대한민국과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대전고의 웅비와 대전의 발전, 동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입니다.

다시금 저에게 4년 동안 여러분의 대변자로서의 소임과 엄중한 책무를 맡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가 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박승일 선수는 농구 국가대표와 모비스 프로농구단 코치를 역임한 우리 농구계의 인재였습니다.

모교 체육관에서 재학생 후배들에게 특강을 마친 후, 환자용 이동침대 위에서 눈꺼풀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박 선수와 함께 수백 명 어린 후배들 앞에 섰습니다. 후배들과 마주보며 교가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10대 아이들을 보면 먼 외계에서 온 것 같다고들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일상 언어도 낮설고, 공동체니 사회니 하는 말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니까요.

그 날 모교 체육관은 달랐습니다. 오직 눈꺼풀 움직임 하나만으로 교가에 화답하는 박승일 선배한테 어린 후배들은 한마음으로 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전고 후배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3·8민주의거와 대전고등학교

4·19혁명 56주년이 지났다.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8민주의거 역시 56주년이 지났다. 정치적 제약 때문에 눌러 있다가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40주년이던 2000년부터 고개를 들었다.

그 해 3월 8일,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주최로 대전고 강당에서 처음으로 기념식과 초청 강연회를 했고, 오후에는 대전고 동창회관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장(박종윤, 32회)이 인사말을 했고, 대전광역시장(홍선기, 34회)과 충청남도 지사(심대평, 38회)가 축사를 했으며 사회 저명인사, 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너그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질타의 개념까지도 3·8의 가슴을 찔렀다.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단독으로 데모를 했지만 그 사실 하나만 내세운다는 것은 관련 대고생의 자만심이요, 우월감이요, 선민의식이요, 크고 높은 것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이라고 오히려 서운한 인식을 안게 되었다. 이 인식은 대전고등학교 밖에서보다 안에서 더 강하게 밀려오기도 했다.

다시 심사숙고하여 기존에 있던 대전총남 4·19혁명동지회와 연합하여 한 지봉 두 가족 살림을 꾸린 것이다.

사단법인 대전총남4·19혁명동지회(제31회)와 사단법인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제32회)가 2000년 8월 31일자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다.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면서 기념탑을 건립하고(2006), 대전광역시에서는 3·8민주의거 기

념 조례안을 공포하게 되었다(제3768호. 2009.10.9).

마침내 2013년 4월에는 국가법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로 3·8대전민주의거의 민주화운동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국회 통과 4월 29일. 정부 공포 5월 22일). 대전고 출신 일부가 생각하는 ‘대전고의 3·8민주의거’가 ‘대전고가 중심이 된 대전의 3·8민주의거’, ‘4·19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의 3·8민주의거’로 정당하게 표방을 한 것이다.



홍보용 ‘3·8리플렛’의 글은 이런 절차를 고려하여 필자가 조사 정리한 것임을 밝히며 여기 그 일부를 소개한다.

◇3·8민주의거 – 의의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 3월 10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부패, 불법적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3·8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큰 것이며 대구의 2·28, 마산의 3·15와 함께 4·19혁명의 단초로서 중대한 의의를 새길 수 있는 것이다.

◇3·8민주의거 – 내용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야당 부통령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연설회와 때를 맞추어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대전고등학교 1,000여명의 학생이 독재 타도와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본래 대전 시내 고교생들이 연대하여 시위에 참가하기로 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경찰의 극심한 저지를 받은 가운데 보문고등학교는 3월 9일부터, 대

통에 빠지고 넘어져 곤경에 처하거나 상처가 난 경우도 허다했다. 한 달 이상을 피신했던 학도호국단 간부들도 있었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진 학생도 많았다. 특히 두 명의 교사(대전고 조남호, 금종철)가 수갑을 차고 곤봉 세례를 받으며 경찰서에 연행되는 애끓는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경찰 방망이로 맞아 고막이 터지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대전고 송병준)도 있다.

당시의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동아, 조선, 한국, 대전, 중도일보 및 서울신문 등 전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2000년부터 시작한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의 각종 간행물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이하 생략)

3·8민주의거는 독재 저항운동이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다. 3·8민주의거는 민주·정의·자유·평화의 정신적 가치를 시민의식으로 대변한 대전고등학교 선봉의 쾌거였다.

지금 대전고 교정에는 3·8 & 4·19 기념조형물 ‘현정탑’이 있고 「3·8민주의거 기념비」가 햇불인 듯 빛나고 있다. 도서관에는 「3·8기념문고」가 있다. 2년 전부터 대전고만의 3·8기념식을 부활시켰다. 40회, 41회의 극히 일부 주역들이 참여하고 있다. 3·8을 모르고 4·19를 논하는 3·8 무지의 동문도 많이 만난다. 초라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다시 생각해본다. 대전광역시 조례로 받들고 국가법률로 선도한 3·8민주의거, 대전고 100년사에 으뜸의 쾌거가 아닐까.

김용재(41회)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대전총남4·19혁명동지회 회장

전공업고등학교는 3월 10일부터의 학기말 시험(당시는 4월에 새학기 시작)으로 시위를 봉쇄했으며, 9일에는 또 경찰에서 4개 학교 학생대표 24명을 연행 구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에는 다시 대전상업고등학교 학생 600여명이 자유당의 그릇된 정·부통령 선거전략을 규탄하고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열렬한 시위를 감행했다. 이 과정을 통합하여 3·8민주의거로 규정하였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100여명의 학생이 연행 구속되어 고초를 당했으며, 수많은 학생이 총개머리판과 방망이로 얻어맞았고 교복, 교모, 신발, 소지품 등 잃어버린 물건이 수없이 많았다. 또한 논바닥에 가두어 놓은 인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1회 동창회

회장 문 윤 성
총무 손 장 현
재무 김 진 태

재경회장 임 현 준
재경총무 한 윤 우

총동창회 부 회 장 김홍철 이충식
총동창회 자문위원 김순식 문윤성
송시헌 황성연
총동창회 이 사 권용대 김학수
남구현 박기서
서광용 신경식
임범수 전병구
전복진 조성남
주광섭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순식
중부지회 회 장 신경식
중부지회 총 무 김현수
서해안지회 회 장 광덕신
서해안지회 총 무 구윤희

재경이사 강직수 강희달
길재성 김관섭
김대식 김보균
김영태 박종규
배재문 백남재
변상무 서희덕
성기문 손광기
손문영 송인권
신영철 신윤희
안창호 오연균
오원근 윤민상
이건복 임성규
임창수 임헌준
장원영 최병갑
한윤우 홍세진
황성연

‘2016 대능선생님상’ 여섯 분 수상

‘2016년 대능선생님상’ 시상식이 2월 23일 11시 30분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대능선생님상은 40회 졸업생인 윤호일(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동문이 모교 재학 시절 수업료를 지원해 준 은사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후배들을 배출하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08학년도에 신설한 상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선생님을 선발하여 상패와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올해로 8번째가 된다.

이날 윤 동문은 선생님들 중 2015학년도 학력신장 최우수교사 3명(이석환, 유정희, 이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최우수교사 2명(강의창, 이현준), 진로진학지도 최우수교

사 1명(이주현) 등 총 6명을 선발해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또, 서울대에 진학한 정민규 학생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윤 동문은 2008학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부한 것 외에도 지난 1990년도부터 26년간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총 5,58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 동문은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Juris Doctor 취득, 미국 Baker & McKenzie로펌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가 윤호일 변호사, 다섯 번째가 김현규 교장

모교에서는 윤호일 동문의 모교와 선생님에 대한 사랑,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후배들이 본받아 사회에 공헌하는 인

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실을 ‘윤호일 스터디 홀’로 명명, 운영하고 있다.



제95회 졸업식... 졸업생 총 38,465명

제95회 졸업식이 지난 2월 4일 본교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신석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명문전통의 대전고 후배가 됩’을 축하하고 “새로운 경쟁의 세계는 지난 3년 간 함께한 소중한 친구와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선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총동창회가 후배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영예의 능화상은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에 합격한 정민규 군이 수상했다. 장영철 이사장은 대전고동창장학회 장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를, 박웅범 상임이사는 박종윤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참대능봉사상을 전달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95회 졸업생 전원의 총동창회 입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모교의 졸업생수는 총 38,465명이 되었다.

야구부 후배들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눈빛안과, 야구 유망주에 장학금 480만원 전달

모교(교장 김현규)는 3월 16일 오전 10시 교장실에서 야구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야구부 유망주 장학금은 평소에 야구에 관심이 많았던 70회 졸업생 이호(눈빛안과 병원장) 동문이 모교 야구부 유망주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장학금으로, 유망주로 선발된 신현수(2학년), 정구민(3학년) 선수에게 240만원씩 총 480만원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동문은 “후배들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전고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역시 사회에 나와 대전고 졸업생의 긍지와

여러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대전고 졸업생의 명예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재능기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호 동문은 충남대 의대(대전시 교원연합회장상 수상),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 전공의(백내장, 망막, 유리체 전임), (전) 연세눈빛안과 대표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교수와 눈빛안과 대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5년 이상의 안과 경력으로 시력교정수술, 안내렌즈삽입술, 노안, 백내장, 녹내

‘박영규 스터디 홀’ 헌판식



사진 왼쪽부터 조선희 여사(박 고문 부인), 박영규 고문, 김현규 교장

제15, 16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박영규 총동창회 고문(28회)의 모교 사랑을 기리는 ‘박영규 스터디 홀’ 헌판식 행사가 지난 5월 10일(화) 오전 10시 학생과 교직원, 동창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모교와 후배 사랑이 각별한 박 고문은 사재를 털어 총 1억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김현규 교장은 “스터디 홀 헌판은 단순히 교실이나 학습실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탐구에 힘쓰고 있는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길 기대하는 행사”라면서 “배려와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호 동문이 신현수(2학년, 왼쪽) 선수와 정구민(3학년, 오른쪽) 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 망막부분까지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으며, 헌신과 나눔이라는 신념 아래 해마다 불

우한 이웃들을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2회 동창회

회장 김 형 태

총무 류 기 호



대표 변호사 김 형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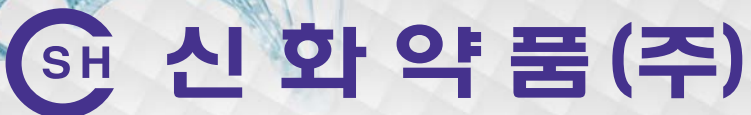


302-831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둔산동), 민석타워 9층
TEL. 042)472-2033 FAX. 042)472-2035
H.P. 010-5409-6462 E-mail. blueht333@hanmail.net



대표이사 정 석 용

305-325 대전 동구 동대전로 110번길 4
전 화: 042)285-5882 팩스: 042)285-5884
휴대폰: 010-8863-9188 E-mail: furming@naver.com



대표 이 강 욱

300-150 대전 동구 태전로 30(정동)
Tel: 042)256-1205 Fax: 042)254-1305
H.P: 010-3403-1205 E-mail: sinhwa53@hanmail.net

종오당 약국

대표약사

홍 종 오 (52회, 총동창회 감사)

대전 성모병원 지하주차장 입구

042)254-4374~5

e-mail: BELL5@KPAC.co.kr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경대전고등학교 제52회 동창회

회장 최 경 순

총무 이 원 건





천하대고48 세계문화유산여행을 떠나다

동기들 간에 유대감이 남다르기로 유명한 48회 동기회가 2012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159명(대전 53명, 서울 106명)이 참가해 안동과 경주 일원의 세계문화유산 코스를 탐방한 이번 여정은 재미 사업가인 유병학

동문이 2000만원, 이기재 동문이 1300만원을 후원하고, 대전과 재경의 추진위원들이 5개월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편안

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다.

이번 여행은 설악산 일원으로 떠난 1차 여행 때의 151명(대전 56명, 서울 95명), 강진, 완도, 청산도를 유람한 2차 여행 때의 132명(대전 60명, 서울 72명)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단양으로 떠나는 추억의 봄소풍

오랜간만에 친구들과 뜨거운 우정을 나눈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두 달여 전, 김종구 동 기회장으로부터 이번 춘계 테마여행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차’로 떠나는 추억의 봄소풍! 첫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차!, 소풍! 얼마나 추억과 향수를 자극시키는 단어입니까? 우리 집행부는 한순간에 의기투합해 여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게 됐고, 기차로 못오는 서울 친구들 배려 차원에서 ‘단양’으로 떠나는 추억의 봄소풍으로 전격 개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고, 뜨거운 우정을 나누기로 했으니 명칭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4월 24일! 마침내 대전고 57회 동기모임에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사가 시작됐습

니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친구들 81명,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들 47명, 도합 무려 128명! 대규모 여행단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기차 한 칸 전 좌석과 또 다른 칸 절반을 빌렸습니다.

대전역 ‘여행상담센터’ 앞에서 집합시각인 아침 7시 20분을 전후해 낮익은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금세 엄청난 인원이 운집했습니다. 서로 반가운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포옹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옛 시절 소풍이 있던 전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아침 일찍 서둘러 학교에 갔던 기억의 파편들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친구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순식간에 뜨거워지는가 봅니다.

7시 42분발 기차에 탑승한 친구들은 마음이 성급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권하고, 미처 인사를 못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다닙니다. 옛 시절 이야기, 살아 온 이야기, 살아 갈 이야기 등등... 말문이 터진 아이처럼 애기꽃, 웃음꽃들이 만발했습니다.

2시간 30여분이 어느새 훌쩍 지나 단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구인사에서 조우하기로 했던 서울 친구들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빨리 오게 돼 단양역 앞에서 우리 대전 친구들을 영접하는 ‘깜작쇼’를 연출했습니다.

대전팀은 단양시에서 제공한 3대의 관광투어버스에 나눠 타고, 이번 봄소풍의 메인인 구인사로 향했습니다. 각 버스엔 어여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길 안내를 해주고, 맛깔스런 해설을 곁들여 주니, 우리들의 봄 나들이는 신나기만 했습니다.

구인사에 도착한 친구들은 협곡을 가득 메운 사찰 건물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천태종의 총본산이니 이 정도 건물 규모는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꼭대기 대조사전 광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 후, 각 반별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인사를 오르고 내려오는데 약 1시간 30여분이 걸렸습니다. 몸을 풀기에 적당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식당에 들러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한 ‘소백산대강막걸리’로 목을 축이는 여유로움을 즐겼습니다.

이어, ‘온달관광단지’로 이동해 온달동굴, 온달산성, 고구려 역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 등을 관람했습니다. 둘러보고 나오는 친구들에게서 파사롭고 화사한 봄 햇살을 발견했습니다. 무척이나 기분이 들뜬 모습들이었습니다.

또다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오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늘정식으로 유명한 향토음식점 ‘장대리식당’입니다. 2층에 우리들만의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약간은 비좁은 감이 있었으나, 오히려 정감을 나누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 한번 요란법석, 시끌벅적, 왁자지껄... 이별의 시간이 다가옴이 아쉬워서인지 사회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집한 장면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정을 확인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식당 앞마당에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다함께 교가를 합창하고, 서로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나눴습니다. 순간 허탈한 마음이 슬며시 파고드는데,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의 잔상이었습니다.

김인수(57회) ‘추억의 봄소풍’ 추진위원장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0회 동창회

재경 회장 박인규
총무 정범희

대전 회장 임성균
총무 박원희

대전 해병대 장교회

회장 송철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탄로 495-34
010-8280-1500

아르누보

宋 송한의원

원장

송철호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7
아르누보 펠리스 2층(샤크존 맞은편)
042-252-6454, 010-3426-6454

옥천 중앙의원

원장
송세헌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5-7
Tel. 043-732-1878
H.P. 010-5091-6277

평화 완구사



대표 이주환

대전시 동구 중동 76-18(중앙시장 내)
T. 042-256-0652
H. 010-5407-5858

목요 언론인클럽

감사 임치환
(전 대전MBC 이사)

대전시 유성구 송림로 20 송림마을A 204-602
HP. 010-5408-3833

35회

- ◆졸업 60주년 자축연
 - 일시/장소 : 4월 15일/태화장
 - 39명 참석(대전·충청권)
- ◆2015년도 정기총회 겸 송년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5일/태화장
 - 41명 참석
- ◆임원회의
 - 일시/장소 : 2015년 9월 7일/동창회 사무실
- ◆기부금 협조자
 - 권선우 회장 100만원
 - 김성태 회장 200만원
- ◆회비 납부
 - 교능회(김용식 회장) 9만원
 - 청능회(김정수 회장) 6만원
 - 28회(김성태 회장) 15만원
 - 송덕헌 3만원
 - 심원중 3만원
- ◆주소변경
 - 김수진 : 대전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5
 - 김재균 : 대전시 중구 선화로 35번길 18-14
 - 이수웅 : 대전시 중구 목동로 69 하늘아파트 303동 1601호
 - 김정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26 유당마을 신관 B동 704호

39회

- ◆정기총회
 - 일시 : 4월 23일
 - 백남원 재경회장 등 33명 참석
 -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임기 2년)
 - ▲회장 정영 ▲부회장 최영규 ▲총무 이영웅 ▲감사 송재영

40회

- ◆3.8민주의거 57주년 기념식 및 헌화
 - 일시/장소 : 3월 8일/대전시청 3층 대강당
 - 헌화 : 둔지미공원
- ◆송년의 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
- ◆재경 동기기 송년의 밤
 - 일시 : 2015년 12월 23일
- ◆‘가을여행’ 행사(61명 참석)
 -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0일/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 ◆동문동정
 - 김정남 : <이 사람을 보라2-인물로 보는 한국 민주화운동사> 출판기념회
 - 윤호일 : 대능선생님상 시상(2.23)
 - 박용철 : YTN채널 ‘강소기업이 힘이다’ 프로 ‘호전실업’ 편 방영(2015. 11. 4)
- ◆애경사
 - 박홍배 : 모친상(04. 23)
 - 차창국 : 본인상(04. 03)
 - 김 윤 : 모친상(03. 06)
 - 금충웅 : 본인상(02. 29)
 - 박석홍 : 모친상(02. 22)
 - 오창근 : 모친상(01. 05)
 - 윤성림 : 모친상(2015. 11. 12)
 - 한춘수 : 부인상 및 모친상(2015. 08. 17)

- 송두호 : 본인상(2015. 07. 30)
- 김홍필 : 여혼(2015. 07. 04)
- 서문덕 : 자혼(2015. 06. 27)
- 임철중 : 자혼(2015. 06. 07)
- 양창열 : 여혼(2015. 06. 07)
- 송은섭 : 여혼(2015. 05. 23)
- 윤석렬 : 여혼(2015. 05. 10)
- 정일근 : 자혼(2015. 04. 25)

42회

- ◆대전-서울 합동야유회(75명 참석)
 - 일시/장소 : 4월 12일/아산 외암마을
- ◆봄 소풍(36명 참석)
 - 일시/장소 : 4월 2일/태안 천리포수목원
- ◆대전-서울 정기총회(각각 동시 개최)
 - 일시 : 1월 12일(31명 참석)
- ◆송년회(49명 참석)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1일/태화장
- ◆산사이 가을소풍(31명 참석)
 - 일시/장소 : 2015년 11월 1일/서천 동백정 일대
- ◆애경사
 - 김현중 : 자혼(3. 13)
 - 이세종 : 여혼(3. 5)
 - 남기철 : 장모상(2. 1)

46회

- ◆대전 동기기 2015년 송년의 밤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7시/월평동 베이스캠프
 - 60명(부부) 참석
 - 국악공연 한마당(이시구 동문 협찬 : 한밭대 국악공연 강팀)
 - 섹스폰 연주 (육경수 동문)
- ◆대전 동기기 정기총회(31명 참석)
 - 일시/장소 : 1월 16일(월) 오후 7시/샤브웰 탄방점
 -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
 - ▲회장 김종남 ▲총무 백재완 ▲감사 이윤호 ▲자문위원 강세경, 권희상
- ◆재경 동기기 2015년 송년의 밤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 64명 참석
- ◆재경 동기기 정기모임(56명 참석)
 - 일시/장소 : 2월 18일 오후 6시/충무로대림점
 -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
 - ▲회장 고현욱 ▲총무 이원오 ▲감사 박종규
- ◆재경 동기기 벚꽃 남산모임(45명 참석)
 - 일시 : 4월 9일(토)
- ◆애경사
 - 조성근 : 모친상(4. 16)
 - 송관현 : 장모상(4. 9)
 - 송석현 : 모친상(4. 3)
 - 고현욱 : 여혼(4. 2)
 - 김동우 : 모친상(3. 31)
 - 이영구 : 본인상(3. 15)
 - 이명규 : 자혼(3. 5)
 - 박노환 : 모친상(2. 27)
 - 이민호 : 모친상(2. 5)
 - 공기성 : 여혼(2015. 12. 19)

- 이종설 : 장모상(2015. 12. 5)
- 故 채광석 : 자혼(2015. 12. 5)
- 류재호 : 자혼(2015. 12. 2)
- 문덕균 : 자혼(2015. 11. 15)
- 이찬형 : 본인상(2015. ??, 21)
- 이윤우 : 부친상(2015. 10. 12)
- 박찬각 : 모친상(2015. 10. 2)
- 이재형 : 여혼(2015. 10. 3)
- 양세성 : 여혼(2015. 9. 19)
- 송갑준 : 장인상(2015. 9. 3)
- 윤명호 : 여혼(2015. 8. 24)

47회

- ◆애경사
 - 이규범 : 자혼(4. 10)
 - 금동인 : 모친상(3. 21)
 - 윤시준 : 모친상(3. 19)
 - 석지생 : 자혼(3. 1)
 - 김학수 : 모친상(2. 27)
 - 박노용 : 모친상(2. 9)
 - 최경묵 : 자혼(1. 23)
 - 이문표 : 자혼(1. 17)
 - 김용세 : 장인상(2015. 12.11)
 - 김영남 : 자혼(2015. 12. 6)
 - 정현화 : 자혼(2015. 11. 29)
 - 우태형 : 자혼(2015. 11. 22)
 - 이영신 : 부친상(2015. 11.16)
 - 전궁령 : 자혼(2015. 11. 15)
 - 윤현승 : 자혼(2015. 10. 31)
 - 김연진 : 자혼(2015. 10. 9)
 - 이광희 : 모친상(2015. 10. 1)
 - 문종욱 : 모친상(2015. 9. 21)
 - 김재준 : 여혼(2015. 9. 5)
 - 이계원 : 모친상(2015. 8. 28)
 - 백백철 : 본인상(2015. 8. 23)
 - 이광원 : 본인상(2015. 8. 18)
 - 김화식 : 장모상(2015. 7. 27)

50회

- ◆대전 동기기 정기총회
 - 일시 : 2월 23일
 -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
 - ▲회장 임성균(주성 전 회장 퇴임)
 - ▲총무 박원희 유임
 - 월례 모임일자 격월(짝수월) 4번째 화요일로 변경
- ◆재경 동기기 정기총회
 - 일시 : 3월 29일
 - 회장 및 임원 유임
 - ▲회장 박인규 ▲총무 정범희
 - 2017년부터 평생기금 집행
 - 개교 100주년 재경 50회 준비위 구성
- ◆대전 초청 강연회
 - 주제 : 부 창출의 기회
 - 강사 : 심만규(50회)
- ◆재경 초청 강연회
 - 주제 : 부동산 관리의 모든 것
 - 강사 : 주재평(50회)
- ◆애경사
 - 박원희 : 자혼(5. 28)
 - 이준한 : 본인상
 - 조종길 : 본인상

- 유육재 : 본인상
- 황의철 : 본인상
- 송양기 : 부친상
- 이현우 : 부친상
- 김영호 : 부친상
- 강인중 : 모친상
- 천승희 : 모친상
- 유명준 : 모친상
- 정범희 : 모친상
- 이영섭 : 모친상
- 이현우 : 모친상
- 박영호 : 모친상
- 임치환 : 모친상
- 김천식 : 장모상
- 심만규 : 자혼
- 유기준 : 자혼
- 박희범 : 자혼
- 정호준 : 자혼
- 송창범 : 자혼
- 류진열 : 자혼
- 김태원 : 자혼
- 김경환 : 자혼
- 이현우 : 여혼
- 황종일 : 여혼
- 故 이준한 : 여혼
- 故 김재성 : 여혼
- 천승희 : 여혼

53회

- ◆3월 정기모임
 - 일시/장소 : 3월 25일 오후 5시/대전 서구 둔산동 바다화상
 - 김윤동 회장을 비롯해 심재필, 김항순, 전영근, 안태운, 이영해 전 회장 등 30여명 참석
 -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조출하면서도 의미 있게 치름
- ◆기금 찬조
 - 전영근 : 30만원
 - 류동열 : 30만원
 - 김윤동 : 30만원
- ◆애경사
 - 성원규 : 여혼(4. 30)
 - 김일환 : 자혼(4. 30)
 - 이종선 : 자혼(4. 17)
 - 배영헌 : 자혼(4. 16)
 - 윤기서 : 자혼(4. 16)
 - 이명환 : 자혼(4. 10)
 - 이상열 : 여혼(4. 2)
 - 김성련 : 여혼(2. 20)
 - 김성태 : 자혼(2. 14)
 - 이용석 : 자혼(2. 13)
 - 민경렬 : 부친상(3. 11)
 - 정대영 : 자혼(3. 5)
 - 윤효섭 : 모친상(3. 1)
 - 유학수 : 부친상(2. 24)
 - 김종일 : 장인상(2. 22)
 - 전영근 : 장모상(2. 22)
 - 이규성 : 모친상(2. 18)
 - 유계현 : 장인상(2. 10)
 - 송달영 : 장인상(2. 7)
 - 임덕수 : 여혼(1. 10)

• 서정천 : 장인상(1. 8)

54회

◆동기회 회장단

〈대전〉▲회장 진승식 ▲부회장 조성재
▲총무 송일섭 ▲재무 조영환
〈재경〉▲회장 김홍무 ▲부회장 김병운
▲총무 전영화

◆회원동정/주소변경

- 최병승 : 직장 : KOMAC(한국해사기술)
자택 : 송파구 올림픽로 47길 9,
풍납동 쌍용 101동 905호
- 전규중 : 범시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추진위
원회 공동대표
- 정구도 : 대만 국가기념관 방문(3월)
- 최삼규 : 〈다시쓰는 동물의 왕국〉북콘서
트(3. 5)
- 김병홍 : 롯데정밀화학 상임감사(3월)
- 최준재 : 금오공대 교수, 경북최고체육상
수상(3월)
- 육근열 : 천안연암대 제13대 총장 취임
(1월)

◆애경사

- 장병찬 : 모친상(4. 25)
- 김추성 : 여혼(4. 23)
- 최종원 : 여혼(4. 16)
- 윤종림 : 부인상(4. 14)
- 이병주 : 자혼(4. 10)
- 김연권 : 부친상(4. 8)
- 김주환 : 여혼(3. 19)
- 유병길 : 장모상(3. 16)
- 신명중 : 본인상(3. 15)
- 정덕수 : 모친상(3. 13)
- 김동혁 : 여혼(3. 5)
- 박화춘 : 부친상(3. 1)
- 강인빈 : 여혼(2. 27)
- 남사현 : 여혼(2. 20)
- 황인무 : 자혼(2. 20)
- 김형중(5반) : 장인상(2. 16)
- 이희석 : 장모상(2. 12)
- 민병옥 : 여혼(1. 30)
- 김양선 : 장인상(1. 28)
- 김원봉 : 모친상(1. 25)
- 김병춘 : 여혼(1. 17)
- 신동린 : 자혼(1. 10)
- 문연경 : 자혼(2015. 12. 26)
- 서익식 : 장모상(2015. 12. 20)
- 이범환 : 여혼(2015. 12. 19)
- 박정중 : 자혼(2015. 12. 19)
- 장철수 : 부친상(2015. 12. 9)
- 황인웅 : 자혼(2015. 12. 5)

56회

◆2016 이사회

- 일시/장소 : 4월 22일/유성 학일식

◆2016 정기총회

- 일시/장소 : 2월 19일/유성 계룡스파텔

◆2015 재경 송년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7일/롯데호텔

◆2015년 송년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4일/유성 계룡

스파텔

◆회원동정

- 김황구 : 예산경찰서장 취임(1. 15)
- 이원형 : 대한무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선임(2015. 11. 20)
- 신현대 : 대한미세수술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2015. 11. 9)
- 여형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내정(2015. 10. 26)
- 오상영 : 하나외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선임(2015. 9. 1)

◆애경사

- 김홍목 : 여혼(5. 21)
- 김정중 : 자혼(5. 7)
- 남한일 : 장모상(5. 1)
- 김홍린 : 여혼(4. 30)
- 김창선 : 부친상(4. 24)
- 김기봉 : 여혼(4. 17)
- 김연옥 : 부친상(4. 10)
- 김호철 : 자혼(4. 9)
- 임양빈 : 장남상(4. 5)
- 김용완 : 여혼(3. 19)
- 권태관 : 여혼(3. 19)
- 안종상 : 자혼(3. 12)
- 故 김병수 : 여혼(3. 12)
- 인준희 : 본인상(3. 10)
- 황대서 : 여혼(3. 6)
- 이규복 : 부친상(2. 29)
- 최규홍 : 장인상(2. 25)
- 황명선 : 모친상(1. 28)
- 안병길 : 부친상(1. 22)
- 김용원 : 부인상(1. 21)
- 김 근 : 모친상(1. 16)
- 심인섭 : 장인상(1. 11)
- 남용우 : 자혼(1. 9)
- 김익호 : 부친상(2015. 12. 22)
- 장수진 : 여혼(2015. 12. 19)
- 장동철 : 여혼(2015. 12. 19)
- 박태웅 : 장인상(2015. 12. 18)
- 오택진 : 장모상(2015. 12. 15)
- 양무열 : 여혼(2015. 12. 12)
- 양재열 : 모친상(2015. 12. 8)
- 장완호 : 자혼(2015. 12. 6)
- 조병희 : 여혼(2015. 11. 28)
- 손병국 : 모친상(2015. 11. 26)
- 김성일 : 장모상(2015. 11. 22)
- 김승환 : 모친상(2015. 11.19)
- 전대웅 : 자혼(2015. 11. 1)
- 강창모 : 본인상(2015. 10.25)
- 심재길 : 여혼(2015. 10.18)
- 배기호 : 장모상(2015. 10. 10)
- 장성환 : 여혼(2015. 10. 10)
- 양성직 : 모친상(2015. 10. 2)
- 김성오 : 모친상(2015. 10. 2)
- 오종훈 : 장인상(2015. 9.10)
- 이용구 : 모친상(2015. 9. 4)

57회

◆단양으로 떠나는 추억의 봄소풍

- 일시 : 4월 24일
- 30여명 참석, 대전-서울 연합행사



◆등반대회

- 일시/장소 : 3월 20일/식장산 둘레산길

◆우정의 한마당(70여명 참석)

- 일시/장소 : 2월 24일/연향한정식

◆회원동정

- 안호성 : (주)화신상사 사업장 가수원동 이
전개업(4. 15)
- 송영곤 : 대전과학고 교장 승진(2월)
- 황의만 : 정림중 교장 승진(2월)
- 노병찬 :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취임
(1. 25)
- 최명길 : 북콘서트 〈미운정치, 예쁜정치〉
출판기념회(1. 12)
- 이학록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장
(1. 1)
- ◆애경사
- 김기성 : 여혼 (4. 16)
- 이용문 : 장인상(4. 4)
- 이윤환 : 자혼(4. 2)
- 조수범 : 부친상(3. 30)
- 송영곤 : 장인상(3. 16)
- 황명제 : 모친상(2. 21)
- 이민구 : 여혼(2. 20)
- 권오균 : 자혼(2. 20)
- 채희택 : 자혼(2. 20)
- 황의만 : 여혼(2. 14)
- 윤오주 : 모친상(2. 6)
- 박진용 : 모친상(1. 31)
- 송덕현 : 장모상(1. 21)
- 이영하 : 여혼(1. 17)
- 송덕현 : 여혼(1. 17)
- 김영진 : 장인상(1. 1)

58회

◆사은회 행사



- 일시/장소 : 4월 30일 오후 6시/중동 태
화장
- 〈초청〉 조일남, 이병주, 김고원, 정충국,
배영래, 김선문, 황순목, 안무승, 이성주,
이협주, 황치영, 류진국, 신항순, 윤항구,
공기표, 임영수, 신근철, 류무열, 윤명중,
편명범, 박준태 선생님 등 스물 한 분
- 〈참석〉▲속초 박병규/서울 정재근, 최한
규 ▲수원 안병권/광주 광주 이명복 ▲대
전 명완재, 안대수, 장진엽, 김광덕, 이성
희, 류기영, 이형, 송석두, 도중철, 김태동
(7), 이후영, 이진덕, 성진형, 강훈구, 신현
철(2), 유준봉, 안용기, 이현식, 하상수, 김
상국, 박영식, 오종환, 이광우, 변재훈, 전
태곤, 양영석 등 서른 한 분

• 참석해 준 분들과 금품을 찬조해 준 친구
들 덕분에 사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사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문동정

- 변재훈 : 대전시청 네거리 지하철 6번출
구앞에 타임서적(주) 오픈-6월 말~7월
초(서점 개업 상담 : 010-4767-4101)

◆애경사

- 송민순 : 여혼(5. 7)
- 이서복 : 여혼(4. 30)
- 고재련 : 모친상(4. 7)
- 권혁준 : 여혼(3. 27)
- 최성원 : 모친상(3. 26)
- 박천서 : 부친상(3. 20)
- 이철우 : 장인상(3. 14)
- 박희춘 : 부친상(3. 7)
- 임현찬 : 장인상(2. 28)
- 차영조 : 장인상(2. 22)
- 이규상 : 모친상(2. 15)
- 백성문 : 장모상(2. 3)
- 하태웅 : 장모상(1. 25)
- 성환주 : 모친상(1. 25)
- 신현철 : 자혼(2015. 12. 26)
- 이항석 : 자혼(2015. 12. 12)
- 임재룡 : 여혼(2015. 11. 14)
- 안상욱 : 자혼(2015. 11. 7)

61회

◆신임 회장 선출 및 이사진 구성

▲회장 한상주 ▲이사 권형준, 구원희, 김
성덕, 박창희, 이문희, 박재용, 강희수, 이
장영, 김태완, 박선배, 최병준, 최명로, 채
종훈, 양필환, 김종무, 최병준, 이승진, 김
중근, 유창조, 김유태

◆동기 골프모임(20명 참석)

- 일시 : 3월 17일

◆동문동정

- 이의범 : 더스크린 SG골프 출시 8개월
만에 전국 300매장 돌파

62회

◆동기 모임(22명 참석)

- 일시/장소 : 4월 6일/홍씨네닭갈비

◆동기 이사회 모임(17명 참석)

- 일시/장소 : 3월 10일/세종조한우

◆동문동정

- 이대성 : 교육행정 사무관으로 승진(1. 1)

◆애경사

- 안석준 : 부친상(5월)
- 조도형 : 부친상(5월)
- 임정석 : 부친상(5월)
- 오재진 : 부친상(4. 16)
- 전상표 : 부친상(4. 11)
- 홍성기 : 부친상(3. 12)
- 이석재 : 부친상(3. 14)
- 황선학 : 모친상(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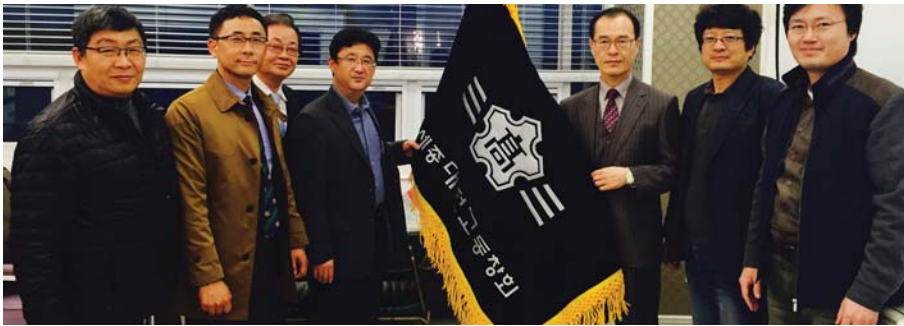
68회

◆11대 임원진 구성

▲회장 성용제 ▲총무 이영수 ▲재무 김
상수 ▲감사 박재형

예산군 동문회

- 신임 회장 박태동(56회, 쌍송약국)
- 신임 총무 김주원(66회, 제일의원)
- ◆축하
- 조성경(39회, 조외과의원) : 따님 조진희



세능회 사무실 현판식

세능회는 3월 8일 세종반석정형외과 원장 오기영 동문의 병원을 사무소로 정하고 진 승식 회장, 오기영(60회) 부회장, 이상용(62회) 부회장, 최정관(62회) 총무, 구자윤(66회) 재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임원 명단> ▲회장 진승식(54회) ▲수석부 회장 변재훈(58회) ▲부회장 유동환(57회), 오기영(60회), 조남범(61회), 이상용(62회),

- 박사 미국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선정한 '촉망받는 젊은 과학인 105인'에 선정
- ◆신임 회원
 - 김항구(56회) : 예산경찰서장 취임
 - 전진호(79회) : 동부화재 예산지점장

안희영(67회) ▲이사 손수명(58회), 이항섭(60회), 최지환(62회), 이철구(64회), 이봉춘(65회), 강세봉(66회), 김병호(67회), 양영신(68회), 이영선(69회), 고봉수(70회), 이광희(77회) ▲고문 서정선(31회), 곽창록(34회), 윤민호(35회), 최윤묵(41회) ▲감사 김형태(52회), 신광철(67회) ▲재무 구자윤(66회) ▲총무 최정관(62회) ▲간사 차정민(66회), 박영욱(68회), 황준식(77회), 한승희(81회)

<大稜> 168호 발행을 마치고

안녕 하세요.
총동창회 사무국장 58회 이동혁입니다.
모교와 동창회를 아끼고 헌신하시는 동문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총동창회 소식지 <大稜>은 142호부터 기별 분담금으로 발행비를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168호는 순서에 따라 49회, 50회, 51회, 52회 기 동창회에서 흔쾌히 300만원씩 분담해 무사히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주신 기 회장님, 총무님과 광고를 협찬해 주신 동문님, 동참해 주신 49회, 50회, 51회, 52회 동문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꼼꼼히 동문 소식을 챙겨 주신 각 기 총무님과 지회 총무님, 김용덕(56회) 재경동창회 사무처장님, 모교 지동선(63회) 행정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169호는 53회, 54회, 55회, 56회에서 분담해 주실 차례입니다.
전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 동창회보가 매회 1만여부 남짓 발행되는데 비해 우리 <大稜>이 그간 2만5천부를 발행해 2만3천여 동문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10% 정도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 사무국에서 일일이 새 주소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주소록을 관리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타교 동창회에서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大稜> 발행비용의 상승으로 더 이상 현행 부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발행비용의 상승은 그동안 할인받았던 우편료가 '정기간행물' 요건 미달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66호의 경우 우편료 포함, 총 발행비용이 2,100만원이나 소요돼 이대로는 연 3-4회 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총동창회는 앞으로 <大稜> 발행을 비롯해 제반 운영경비를 절약하고, 저비용으로 동문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또 <大稜> 발행 면수와 횟수를 조절해 연 1회는 전 동문님들께 발송해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나머지는 PDF 파일 상태로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하는 한편 문자발송 등으로 소통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총동창회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전 동문을 대상으로 1년에 3만원 정도의 연 회비겸 구독료를 받아 <大稜> 발행비용과 각종 행사경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7호는 발송비 부족으로 동기회가 활성화된 40회~75회 동문님께서는 기 회장, 총무님들이 동기회 모임에서 직접 나누어 주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모든 동문님들께 널리 배포해야 하는데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광고를 협찬해주신 조용병(55회, 신한은행장) 동문님 덕분에 <大稜>을 모든 동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는 명문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3만9천여 동문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혁(5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편집위원

1대1 결연장학금

기 수	성 명	납부액	누적액
31	김용우	170	850
31	성백전	170	1,970
34	송 자	340	4,950
36	김용각	1,020	8,940
37	이규성	170	1,700
38	김소일	170	2,310
38	김종구	170	2,310
39	서정선	170	2,310
39회		170	340
40	김남홍	170	2,140
40	양한호	170	1,020
40	윤호일	170	2,780
40	이정치	170	1,860
41	김각영	170	4,280
43	유창중	170	2,310
44	고현철	170	1,360
44	류명열	170	1,155
44	송재준	170	2,550
45	이윤호	170	850
45	한준환	170	1,020
46	강형빈	170	1,360
46	김창만	170	1,360
46	이상량	170	2,310
48	금동화	170	1,500
48	김영주	170	340
48	목이균	170	2,310
48	정만우	170	1,530
49	권오상	1,020	8,110
51	경창호	170	340
51	김대식	170	1,360
51	김보균	510	3,700
51	김희중	170	340
51	오원근	170	170
51	이재일	170	170
51	장원영	170	340
52	고길석	170	2,170
52	이정환	170	2,010
53	류성렬	170	1,360
53	양호승	170	1,700
54	정영재	170	2,310
54	한건표	170	850
55	김성남	170	2,310
55	성하청	170	680
55	안상함	170	1,360
56	김일휘	170	170
56	김홍린	170	340
56	류한호	170	675
56	송인수	170	680
57	송인식	510	3,730
57	오세현	170	2,170
58	김경수	170	2,170
58	박천서	170	1,360
58	조철연	170	1,360
59	신기천	170	510
59	최운식	170	340
60	김대현	170	2,170
60	이명섭	170	850
61	변재상	170	680
61	이의범	1,000	4,050
62	이동인	170	680
69	이도훈	170	340
71	박정섭	170	170

(단위 : 만원, 5, 18 현재)

부회장 회비(100만원)

기 수	성 명	비 고
46	조용건(감사)	
49	권오상 이상현	
50	박태근	2015년도분
52	홍성표	2015년도분
53	양호승	
54	정영재 한건표	
55	김성남 조용병	
57	오세현	
58	조철연	
60	김대현	

(5, 18 현재)

기별 분담금

기 수	기별 분담금	정기총회	계
31	면제	면제	
35	면제	면제	
36	면제	면제	
37	면제	참가비	
38	면제	참가비	
39	면제	참가비	
40			
41			
42			
43	50		50
44	50		50
45	100		100
46	100		100
47	100		100
48	200		200
49	200		200
50	200		200
51	200		200
52			
53			
54	200		200
55	200		200
56	200		200
57	200	100	300
58	200	100	300
59	200		200
60	200		200
61			
62	200	100	300
63			
64	200		200
65			
66			
67	100		100
68			
69	100	50	150
70	100		100
72			
73			
74			
75	75회 포함 이후 면제		

(단위 : 만원, 5, 18 현재)

지도위원 성금(30만원)

기 수	성 명
34	최기준
39	조장호
44	노세래
48	류제민
50	민진기
54	서용주
56	손 윤

(5, 18 현재)

자문위원 회비(30만원)

기 수	성 명	비 고
38	김소일	
38	이종상	
40	윤호일	
44	송재준	
45	한준환	
46	강형빈	
47	오세현	
49	박대복	2015년도분
52	이강열	
66	김용태	

(5, 18 현재)

이사 회비(20만원)

기 수	성 명	비 고
40	박용철	
43	박재하	
44	이운영	
48	정만우	
55	안상함	
56	권희덕	
56	김일휘	
56	송인수	
58	윤재경	
59	김명환	
60	이명호	
63	박송하	

(5, 18 현재)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경대전고등학교동창회

기별 분담금 (단위 : 만원, 4. 30 현재)				
기수	연회비	정기총회	등반대회	송년의 밤
44			50	45
45	60	120		45
46	60	120	50	45
47	60	120	50	45
48	60	120	50	45
49	60	120	50	45
50	60	120	50	45
51	60	120	50	45
52	60	120	50	45
53	60	120	50	45
54	60	120	50	45
55	60	120	50	45
56	60	120	50	45
57	60	120	50	45
58	60	120	50	45
59	60	120	50	45
60	60	120	50	45
61	60	120	50	45
62	60	120	50	45
63				
64	60	120	50	45
65	60	120		
66	60	120		
67				
68	60	120	50	45
69				
70	60	120	50	45
71				
72	60	120	50	45
73				
홍성지회	20			
북가주지회	106,896원			
계	14,706,896원	2,880	1,100	1,035

※74기 이하 면제

부회장 회비(100만원)		(4. 30 현재)
기수	성 명	
48	박일동 이종철 오승균 백태현 이유현 이진갑 명평근 이승우 정덕영 이종국 이신석 임동구 김기룡 홍정의 이신영	
49	이상현 권오상	
58	김경수	
59	나경수	
계	19,000,000	

자문위원 성금(30만원)		(4. 30 현재)
기수	성 명	
36	권선우 심규섭 임갑환(16회계 포함)	
37	김종두(16회계 포함)	
38	송인섭 신석정	
39	박한규 백남일 조용무	
40	심재설 천명운	
42	이만희	
44	이원용	
46	손주환 이시구	
47	정현화	
48	곽유신 김홍은 왕성근 정만우 조현묵 홍승욱	
49	박병석 송용호 이기우	
50	남방현 정상철	
51	문윤성	
52	박성호 송하영	
53	정상직	
54	강인빈 이희석 정태진	
55	박백범 정규형	
56	구본석 김충현 윤인석	
58	오충환 이광우	
60	정용기	
63	이장우	
계	13,700,000	

이사회비(10만원)		(4. 30 현재)
기수	성 명	
33	김주경	
34	김용환(16회계 포함)	
36	유일준	
38	조봉연	
39	유동원 유성홍 장흥천 한건웅 한주철	
40	김민철 배양일	
41	김효경 명건식(16회계 포함) 민동일 전수병	
42	남명진	
44	김명수	
45	강준묵(14, 15회계 포함) 박대범(14, 15회계 포함)	
46	권인순 권희상 김영우 이진환	
47	권두성 류원식 박정은 송현호 양종대 이원희	
48	강구현 강돈묵 강중광 권홍순 김갑순 김수환 노병호 서용운 백지현 이근두 오기환 오동환 이수용 이재준 이중하 정순교 최기식 최병덕 최태균 허문행 홍용태	

이사회비(10만원)		(4. 30 현재)
기수	성 명	
49	강인규 김원영 이상의 정태희 정현철 천윤희 함덕순	
50	김택기 주성	
51	권용대 남구현 박기서 서광웅 신경식(16회계 포함) 임범수 전복진 전병구 주광섭	
52	김덕배 김정모 유하용 류인출 박영선	
53	김광석 김윤동 구본관 나태순 오천균 이은정	
54	김성호 김원경 김원봉 박정종 송병두 신현교 이범우 장남식	
55	김갑동 류재영 이동형 이성구	
56	권혁덕 김영상 남복현 민장기 오탁진 윤형식 유봉조(15회계에 납부) 유재명(15회계에 납부) 이중엽	
57	송영곤 최원욱	
58	권선국 김충수 김한국 명완재 박용진 배재성 손근수 이찬용 전태곤	
59	김석주 김재한 맹완영 이동구 진영주	
60	명광직 윤여백 이주혁(15회계에 납부) 이항섭	
61	김종무	
62	김창수 이대성 이용배 이용배(14, 15회계 포함)	
63	박남규 박희운 안태정 이보행	
64	김성우 문선재 박범정 박종민 이명만 이인성 이창우	
65	김길수 박종인 임홍준 진종식 최순용	
67	고영호(14, 15회계 포함) 김광중	
68	김상수 김창선 김현재	
69	박훈 이도훈	
70	이상민(14, 15회계 포함) 정영환	
71	명노신	
73	송혁준 최영균	
74	이승찬 황윤선	
계	15,900,000	

2015 정기총회 협찬(현금) (단위 : 만원)			
기 수	성 명	금 액	총동창회 직책/직장 직책
48	신현일	1,000	보문통상(주) 대표이사
48	이기재	300	(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33	박종윤	100	(주)세창 회장
53	김현규	100	모교 교장
56	김용욱	1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56	박균익	100	(주)아이씨푸드 대표이사
42	박건영	50	서울정형외과 원장
44	송재준	50	한모기술(주) 대표이사
47	정현화	50	세풍지업상사 대표
48	이신석	50	대전보건대 교수
37	김종두	30	前 교육공무원
37	이규성	30	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41	김각영	30	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51	황성연	30	(주)UPC 회장
52	김형태	30	범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52	이명수	30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54	송병두	30	대전시의사회장, OK재활의학과 원장
58	문성식	30	범무법인 C&I 대표변호사
58	변재훈	30	타임문고 대표이사
62	김석남	30	대전제일화환 대표
63	김경남	30	정다운플라워 대표
49	김원병	20	배재대학교 입학사정관
38	김경배	10	前 동장
52	유하용	10	파랑새기획 대표
53	김영대	10	(주)팩컴코리아 국내사업본부 이사
71회 동창회	10		
재경동창회	100		
청주지회	50		
대흥동 내집식당	10		
계	2,450		

송년의 밤 협찬(광고) (단위 : 만원)			
기 수	성 명	금 액	직장 직책
56	조동인	200	해커스교육그룹 대표
54	송병두	100	대전시의사회장
계	300		

송년의 밤 협찬(물품/달러)		
성명(기수)	내 용	직장·직책
박근태(55)	〈란〉 소주 300병(40만원)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변재훈(58)	베스트셀러 50권(50만원)	타임문고 대표이사
이종민(66)	바이오세라믹 온돌매트 10세트(50만원)	메디스타 이사
권용일(70)	여행용 치약세트 300세트(150만원)	모두투어(주) 홀플러스 유성점 대표
이인구(31)	탁상용 달력 300부	계룡건설산업 명예회장
오수정(44)	벽걸이용 달력 300부	대청병원장
정상철(50)	탁상용 달력 150부	충남대학교 총장
오상영(56)	탁상용 달력 300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이선형(62)	벽걸이용 달력 100부	국민은행 자문대지점장
김문주(62)	탁상용 달력 100부	현대해상 선화지점 둔산SA 팀장
김창선(68)	탁상용 달력 50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조 충청지역본부장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벽걸이용 달력 100부	

2015 정기총회 협찬(물품)		
성명(기수)	직장·직책	품목
임용철(53)	대전대학교 총장	한방소화제 100통 (100만원 상당)
박근태(55)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린소주 600병 (70만원 상당)
이종민(66)	(주)메디스타 이사	가정용 저주파자극기 10대 (60만원 상당)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기념타올 250장 (100만원 상당)

대능가족 등반대회 협찬(현금) (단위 : 만원)			
기 수	성 명	금 액	총동창회 직책/직장 직책
48	신현일	300	총동창회장/보문통상(주) 대표이사
33	박종윤	50	고문/주세창 회장
37	김종두	30	기 회장 겸 자문위원/前 교육공무원
37	이규성	30	고문/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37	이윤기	10	기 회장/前 경찰공무원
38	이동호	10	재경 대능산악회장
48	이신석	50	수석부회장/대전보건대 의무행정과 교수
52	유하용	10	이사/파랑새기획 대표
54	강인빈	50	자문위원/에스와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56	김용욱	1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58	권선국	10	이사/성모가정의원 원장
58	강석만	10	강석만 치과원장
58	금기반	10	이사/대전시 도시계획과
58	오충환	10	자문위원/주코스모E&F 대표이사
58	성진형	10	가톨릭병원 원장
58	명완재	30	기 회장/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상무보
63	김정일	10	
63	이보행	10	이사
67	고영호	10	이사/주충남도시가스 고객센터팀 과장
재경동창회	1,400		
대동모	100		대전고 동문의 동문을 위한 모임
교능회	50		
62회동기회	30		
대흥동 내집식당	10		
계	2,340		

대능가족 등반대회 협찬(물품)		
성명(기수)	내 용	직장·직책
오수정(44)	구급차량 및 이동진료소	대청병원 원장
장윤선(50)	해물찜 4인분 티켓 10매	천년해물마을 대표 (40만원)
박근태(55)	린소주 600병 (70만원)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이광우(58)	닥터에그비누 15세트, 크림 3개(50만원)	갤러리이백화점 별관 이광우치과
전태곤(58)	가정용 주방세트 5개 (10만원)	대한종합상사
이재영(67)	삼푸 10개 (10만원)	서광자원산업 대표

송년의 밤 협찬(현금) (단위 : 만원)			
기 수	성 명	금 액	총동창회 직책/직장 직책
48	신현일	1,000	총동창회장/보문통상(주) 대표이사
48	이기재	100	(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53	김현규	100	모교 교장
56	김용욱	1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33	박종윤	50	(주)세창 회장/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
48	이신석	50	대전보건대 교수
48	임상순	50	임상순·송동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58	성진형	50	가톨릭정형외과(용문사거리)
35	이동호	30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 회장
37	이규성	30	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41	김각영	30	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58	강석만	30	강석만치과(소제동) 원장
58	명완재	30	한화케미컬 상무
58	오충환	30	(주)코스모E&F 대표이사
65	조승호	20	(주)에스원 충주 지사장
65	진종식	20	하나투어 블루여행클럽 대표
52	유하용	10	파랑새기획 대표
58	김철수	10	새나라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58	도정화	10	(주)리서치랩 대표이사
58	도종철	10	도종철법률사무소 대표(강경읍)
58	박영식	10	ETRI 품질연구실장
58	송인암	10	대전대 교수
58	이광우	10	이광우치과(갤러리아 타임월드 별관)
58	이한영	10	리&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58	하상수	10	경로치과(판암동) 원장
62	이보행	10	대현광고기획 대표
총동문	450		총동문 참가비
재경동창회	100		
대동모	100		대전고 동문의 동문을 위한 모임
오능회	50		재경 50~60회 전·현직 회장·총무 모임
농구선수 동문	20		농구선수 출신 동문 일동
계	2,540		



두루약품(주)
의약품유통전문, 바이오의약품 개발

(주)동양엠에스티
의약품 유통전문기업

(주)두루셀텍
마이크로셀 폴리우레탄 폼 시트 생산, 판매

(주)LK 글로벌 & (주)LK 글로벌 CHINA (GUANGZHOU)
전자부품소재 조립 생산

dooroo
PHARM.

대표이사 · 회장 이상헌(49회)

화학 및 의약품 유통전문 두루
서울 서초구 매현로 6길 15 두루빌딩
Tel. (02) 796-5585 Fax. 02)796-5586



 **서울 삼성 내과** 원장 이현구(49회)

종합검진센터 | 소화기내시경(위, 대장)
건강보험공단 검진 | 암검진 | 생애전환기 검진

Tel. (042) 542-2030
가수원 사거리



수익성

안정성

전문성

편의성

일임형 신한ISA

일임형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운용까지!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신한ISA로 多 잡았다!

일임형

신한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누구나!

더 편리하게!

더 실속있게!

목돈마련!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 모바일 가입가능

세제혜택: 200만원 한도 비과세(총 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250만원)

납입한도: 연 2,000만원(최고 1억원)

가입기간: 5년(의무유지기간은 가입대상자별 상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일임형 ISA의 경우 별도의 일임보수가 있습니다. • 상기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로 과세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16-02286호(2016.05.02~2017.04.26)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6-2-367호(2016.04.27~2017.04.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은행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2016)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4위
The Banker 誌 선정(2016)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세계 18위
다보스 포럼 발표(201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